



08-38 (통권 216호)
2008.09.26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미국 주택시장 침체 지속
- 대일 무역 역조 고착화

경영 노트

- 올바른 경제 현실 분석을 통한 위기대처 필요

사회 트렌드

- 호모 나렌스

차이나 리포트

- 외국자본의 탈 중국화 배경과 시사점

저널 브리프

- 글로벌 인재' 관리, 충성도 높이는 데 초점 맞춰야

洗心錄

- 상생(相生)의 유래

□ 미국 주택시장 침체 지속

- 미국 정부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안은 하고 확대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등 의지를 보였으나, 주택시장의 침체로 위기는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
 - 주택이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계기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지속되어 미국 주택시장은 침체가 심화됨
 - 이러한 침체는 근본적으로 주택이 공급 과잉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 증가, 모기지 금리 상승,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최근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호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공급 과잉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어, 전체 주택 시장의 경기 회복은 내년 상반기부터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대일 무역 역조 고착화

- 한국은행(9월 25일)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지향적 성장 전략으로 인해 가공수출을 위한 부품 소재를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조건에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대일 무역적자는 지속
 -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007년 299억 달러(한국 교역액 대비 4.1%)로 2000년 114억 달러(교역액 대비 3.4%)로 빠르게 확대됨
 - 세부적으로 대일 무역적자 중 부품소재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등 대일 역조가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고착화됨
- 대일 무역 역조 고착화의 원인은 원천기술 부족 등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의존적 수출구조가 일차적인 원인이고, 사회경제의 기업 역사 및 문화의 차이도 요인이 됨

□ 올바른 경제 현실 분석을 통한 위기대처 필요

■ (개요)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선진국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예상
 으로 세계 경제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음

- 하지만 기업에게 있어 불황은 위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현실 상황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

■ (사례) 맥킨지의 컨설턴트社가 제시한 현 경제위기 분석

구 분	내 용
1. 경기불황이 2~3년 이어질 수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주택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 보통 2~3년간 마이너스 성장하였음
2. 신용확대 거품이 촉발	영업이익률과 투자 증가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한 신용구매 증가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 위기가 촉발된 관계로 장기 경기 침체가 예상
3. 닷컴 버블 때와 불길할 만큼 유사	이번 사태는 닷컴 버블 때와 같이 시장이 활황일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작용하여 생긴 경제위기여서 현재 기업들이 무리한 차입 투자를 줄이는 등 자산조정 작업을 진행 중
4. 미국 기업 실적 40% 하락 가능	미국 상장기업의 실적이 이미 과거 평균치로 회기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07년 실적대비 최대 40%까지 하락이 예상됨
5. 대공황 수준은 아님	지금 정부 당국들은 경기침체에 대응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어 대공황 당시와 같은 대혼란은 없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오래 지속될 것임

자료 : 조선일보(2008.09.20)의 내용을 재구성

■ (시사점) 경기침체의 위협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 파급되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우리 기업은 철저한 자사 분석과 장기불황에 대한 비상대책 마련 시급함

- 또한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기업의 경우 저가의 매물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호모 나랜스*

- ‘호모 나랜스’(Home Narrans)란 라틴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서 미국의 영문학자 존 닐(Hohn D. Niels)이 1999년 낸 저서 <호모 나랜스>에서 처음 소개한 단어임
 -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임
 - ‘호모 나랜스’로 하여금 제품 홍보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광고계의 최근 트렌드 중 하나임
-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Digital Storytelling)이 화두
 - 제일기획은 ‘디지털 호모 나랜스와 스토리텔링’이란 보고서에서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퍼나는 데 익숙한 네티즌을 사로잡으려면 기업 광고의 스토리텔링 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 기업광고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스토리텔링은 한 편의 이야기를 완성해 들려주는 형식이었음
 - 하지만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소재만 던져놓고 네티즌이 마음껏 이야기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임
- 네티즌은 기존 콘텐츠를 조금씩 입맛에 맞게 변형하는 것을 나름대로 창작 활동으로 생각하며 즐기고 있음
 - 최근 “~하면 되고”라는 유행어를 낳은 SK텔레콤의 ‘되고송’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티즌은 이를 응용해 되고송의 리듬에 맞게 개사한 가사와 동영상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음
 - KTF의 SHOW 광고(‘한 살의 쇼’)도 ‘여덟 살의 쇼’ ‘열 네 살의 쇼’ 하는 식으로 패러디한 콘텐츠가 만들어짐
- 이와 관련, 네티즌이 쉽게 재생산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는 것이 광고업계의 관심이라고 함
 - 또한 최대한 프로 냄새를 지워 화질이나 편집 수준을 일부러 낮춰 일반이 제작한 동영상처럼 보이게 하기도 함

* 이 글은 <‘되고송’처럼, 호모나랜스가 제품홍보한다>(중앙일보, 2008.09.25일자)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임

□ 외국자본의 탈 중국화 배경과 시사점

■ (현황)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계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탈 중국화가 본격화 되고 있음

-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급매물로 처분하려는 중국 자산이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모건스탠리는 상해의 진린(锦麟)천지를 11억 위안에 매각하고, 메릴린치는 상해 난징시루(南京西路)의 개발권을 넘길 예정임
- 씨티은행은 차오허징위엔(漕河景苑)의 아파트 2개 동을 매각키로 했으며, 리먼브러더스도 상해 지역의 상업용 건물 2 개동을 매물로 내놓음

< 외국 투자 은행의 중국 부동산 매각 현황 >

	부동산	지역	가격
모건스탠리	- 신탄디(新天地) 호텔식 아파트 100채	상해	n.a.
	- 화산샤두(华山夏都) 116채	상해	7.6억 위안
	- 푸디아위엔(复地雅园)	상해	5,000만 달러
	- 용링(永菱) 상하이플라자(上海广场)	상해	8.5억 홍콩달러
	- 성룡(盛融)상해국제무역빌딩	상해	9,000만 달러
	- 휘청(绿城) 동하이플라자(东海广场)	상해	19.6억 위안
	- 상해 루완(卢湾) 구역의 상업용지	상해	13억 위안
골드만삭스	- 가오텡(高腾)빌딩	상해	1.1억 달러
리먼브러더스	- 푸하이(福海)빌딩	상해	4.5억 위안
시티그룹	- 차오허징위엔(漕河景苑) 2개 동	상해	n.a.

자료 :和讯网(www.hexun.com).

■ (배경) 모회사의 부실 규모 확대에 따른 유동성 경색 국면이 심화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예상 되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임

- **모회사의 손실 보전** : 2007년 중반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모회사의 투자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지난 3월 베어스턴스는 JP 모건 체이스에, 9월에는 머릴린치가 Bank of America에, 최근에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에 들어감
 - 5대 투자은행 중 남아 있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인수자를 물색하는 한편,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버블 붕괴가 본격화되는 단계에 진입함
 - 9월말 현재 중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2008년 초에 비해 15~40% 정도 하락하였으며, 거래량 또한 급감하는 추세에 있음
 - 외국자본의 증시 투자규제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 자본(핫머니 포함)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시장 호황으로 인해 차익실현 압력이 고조됨

- **중국 경제성장을 둔화** : 세계경제가 침체에 진입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둔화되고, 국내 소비와 투자 또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2008~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9%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상반기 중국 GDP 증가율은 10.4%로 전년동기 대비 1.8%p 하락함
 -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의 30%대에서 10%대로 떨어졌으며,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 위축 가능성도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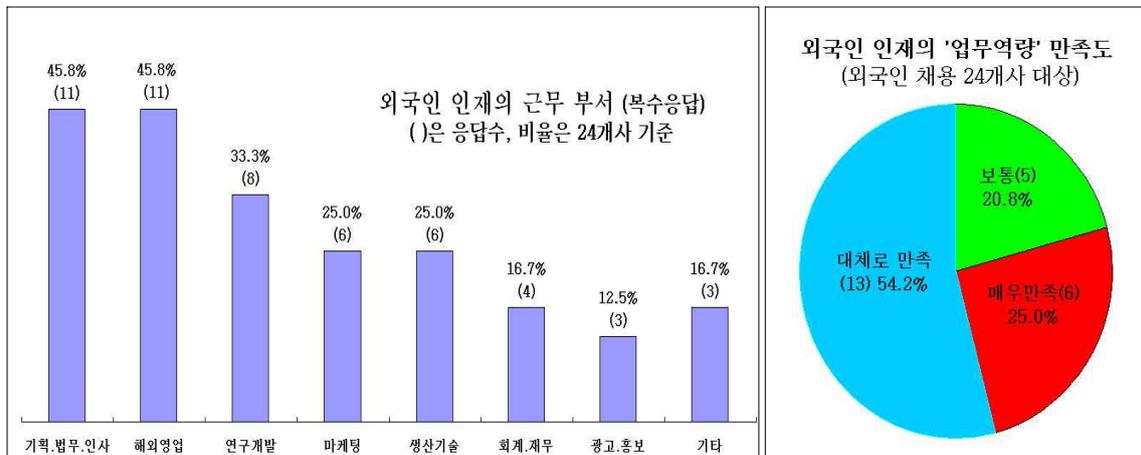
- (시사점) 외국자본의 탈 중국화는 중국 자산시장 버블 붕괴를 가속화 시켜 자산가격의 이성적 회귀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주체들은 중국 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치손실을 입으면서 매물로 내놓은 대도시 중심지역의 상업 빌딩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글로벌 인재’ 관리, 충성도 높이는 데 초점 맞춰야*

- (배경) 해외 사업의 강화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 경영 관리자와 제조업 노동자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르지만 조직 충성도가 문제시되고 있음
 - 조사대상 중 25%의 기업은 외국인 직원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정도 라고 답변해 충성도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 (사례) 외국인 인재의 근무 부서 및 채용 만족도
 -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당 평균 외국인 수는 90.1명이며, 이들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는 기획·법무·인사와 해외 영업부서로 나타남
 - 기획·법무·인사와 해외영업이 각각 45.8%로 가장 많음
 - 국내기업 내 외국인 인재의 ‘업무역량’은 대체로 만족하다는 평가임
 - 대체만족이 54.2%로 가장 높음

<외국인 인재의 근무부서 및 채용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 잡 코리아

- (시사점) 기업의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늘어난 외국인 인재 채용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이 달려있음
 - 외국인의 인재 채용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요사항으로 바뀌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관리체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글은 『Business』 (2008.09.15)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상생(相生)의 유래

상생이라는 말은 서로 살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 고대 중국의 세계관인 ‘오행(五行)’에서 유래되었다.

오행에 대하여 서경에 이르길 “오행은 첫째는 물이고(五行一日水), 둘째는 불이고(二日火), 셋째는 나무고(三日木), 넷째는 금이고(四日金), 다섯째는 흙이다(五日土)”라고 하여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의 순서를 이루었다. 그러나 예기(禮記)에서는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순서로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에서 부터 생긴다는 오행상생(五行相生)을 주장하여 거기에서 상생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상생의 반대편에는 상극이 있다. 상극(相剋)이란 ‘나무는 흙을 이기고, 흙은 물을 이기고, 물은 불을, 금은 나무를 각각 이겨서 억제함’(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을 말한다. 따라서 상극은 ‘나무는 물을 일으키고, 불은 흙을 생성하고, 흙은 금을, 금은 물을, 물은 나무를 이롭게 함’(木生水 水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을 의미하는 상생과 정반대의 개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상생은 무조건 좋고 상극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생은 기운이 일어나도록 복돋아 주고 상극은 기운을 억제하는 것인데, 일으켜야 할 것은 일으켜야 하겠지만 억제해야 할 것은 억제해야 오행의 기(氣)가 제대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로 살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의 경제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을 여러모로 보아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목자에 이르길 “(의로움에 비추어) 후하고 박하게 행하는 이익의 증진(최대 다수를 위한 이익의 증진)이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신념을 갖지 않는 한, 남에게 신념을 줄 수 없다.
스스로 납득이 가지 않는 한, 남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

- 매튜 아놀드(1822~1888) : 영국의 시인·비평가·교육자